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무한한 밤이 지금 끝나고 있으며 곧 낮이 오려 한다.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 앞 저 문 앞을 방황하는 것을 멈춰라.
- 질문:** 어떤 훈련을 토대로 너희 자녀들은 아주 좋은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 대답:** 최소한 8시간 동안 기억하는 훈련을 지속할 수 있다면 너희는 아주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평화와 순수성의 파동을 온 세계 전체의 분위기에 퍼뜨릴 수 있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오직 기억을 통해서 뿐이고, 그러면 너희는 높은 지위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영적인 순례를 하는 동안 결코 지치지 말아야 된다. 몸에 대한 의식을 버리고 끊임없이 영혼을 의식하는 훈련을 쌓아라.
- 노래:** 오 밤의 나그네여, 지치지 마라! 동트는 목적지가 멀지 않네.

옴 산티. 너희 자녀들은 주의를 들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오 밤의 나그네들아, 지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지금 낮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것은 무한한 밤과 낮이다. 무한한 밤이 끝나고 있으며, 무한한 낮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영혼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반 사이클 동안 신봉을 행해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의 이름과 형태를 바꿔놓은 탓에 너희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낮으로 들어가는 길, 즉 철시대에서 황금시대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안다. 악덕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들은 타락했다고 불린다는 것을 이미 아버지가 설명해주었다. 바라트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잊었다. 기타의 신은 무체인데 그들은 육신을 가진 크리슈나의 이름을 대신 집어넣었다. 이것이 최대의 실수였고, 너희가 반 사이클 동안 슬픔을 겪어야 했던 것은 이로 인한 것이었다. 이 실수는 너희가 슬픔을 경험하게 만든 도구였다. 이 역할이 드라마에 기록되어 있다. 신봉의 길에서 너희들은 계속 비틀대며 헤맨다. 만일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면 비틀대며 헤맬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를 안다. 크리슈나가 똑같은 형태로 온다면,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이가 금세 그를 알 것이다. 하지만 바바는 너희 자녀들조차도 그를 잊을 정도로 아주 은밀하다. 크리슈나를 잊을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온 세계가 완전히 그에게 애착을 가질 것이다. 슈리 크리슈나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자기들을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들에게 설명하려면 너희에게 재치가 필요하다. 남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럴 경우에는 더러 봉사에 역행하는 일이 생긴다. 그것은 너희가 누군가에게 이를 증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는 모든 이가 다 불순하고 그들은, “정화자는 시타에게 속하는 라마라네”라고 노래 부른다. 그러나 누가 너희를 순수하게 만드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슈리 크리슈나가 기타의 신이라고 믿는다. 라마의 경전은 없고, 라마야나는 라마찬드라의 경전이 아니다. 라마는 전사 종교를 세우지 않았다. 쉬브 바바는 한꺼번에 브라민 종교, 신인 종교, 전사 종교를 세운다. 너희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이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왕과 왕비는 하나뿐이지만, 많은 이들이 백성들, 하인들, 하녀들이 된다. 전에 왕들은 많은 수의 하녀들과 하인들을 두었다. 왕들은 그들을 흥겹게 해주는 몇몇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춤 등을 추는 몇몇 사람들을 거느렸다. 거기에도 역시 춤추는 것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진 자들이 있지만, 왕과 왕비가 되는 이들은 극소수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남에게도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전시회 봉사에서 어떤 자녀들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너희는 알 수 있다. 너희가 첫 번째로 설명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신을 모르는 탓에 그가 편재한다고 말해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크리슈나를 신이라고 부름으로써 천국을 창조하는 쉬브 바바의 이름을 사라지게 만들어왔다는 점이다. 오직 무체인 아버지만이 모든 이의 창조자다. 그를 기억해야 한다. 그가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치는 바로 그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타에 크리슈나 신이 말한다고 써왔고 그래서 기타에 손을 얹을 때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말해봐라, 슈리 크리슈나가 어디에나 현존하느냐, 아니면 무체인 지고의 영혼이 어디에나 현존하느냐? 모든 이가 혼동되었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나크 왕의 예) 아쉬타바크라 (8가지 장애를 가진 불구자)가 자나크에게 지식을 주었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브람 원소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브라마를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이다. 브람 쿠마리가 아닌, 브라마 쿠마리들이 이 지식을 주고 있다. 저 사람들은 브람 원소를 신으로 여기지만, 그게 아니다, 신은 아버지다. 아버지의 이름이 쉬바다. 브람은 빛의 원소다. 거친 지각을 가진 자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 하인과 하녀들은 등수대로 창조된다. 너희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너희의 역할은 끝났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노력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뭘 가르치든, 육체의식을 가지고 가르친다. 너희 브라민들 외에는 아무도 영혼의식이 아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영혼을 의식하는 자들은 등수대로다. 나는 영혼들에게 말하고 있다. 영혼은 이 기관들을 통해서

말한다. 영혼은 “나의 기관들이 나빠서 나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 영혼의식이 되는 데는 노력이 든다. 황금시대에는 비록 지고의 영혼에 대한 지식은 없어도 너희는 영혼의식 상태로 지낸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신을 기억하는 것과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저 사람들은 손에 염주를 들고, 입으로는 라마의 이름을 읊조린다. 그들은 입으로 “라마, 라마”라 하지만, 여기서는 “라마, 라마”라고 말하는 것조차 잘못된 일이다. 옳은 말은 “쉬브 바바”다. 그렇지만 너희는 “쉬바, 쉬바”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순례다. 물리적인 순례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마르나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그 이름을 언급해야 한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읊조릴 필요가 없다. 연극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우리들의 84생이 이제 끝나고 있다. 우리는 이 낡은 의상을 벗어야 한다.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는 동안 우리는 불순해졌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인간 세계 나무의 몸통은 이제 썩었지만, 가지와 잔가지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것들도 역시 타모프라단하게 되었다. 이제 나무의 수명이 끝나간다. 연극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되어야 한다. 각자가 고유한 배역을 연기할 것이다. 다른 세계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있겠느냐? 너희들은 “바바,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라자 요가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기타의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소서.”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이 어떻게 불순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순수했었다는 것과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는 집에 머문다. 그가 이르는데, 너희는 지고의 거주지에 머물지만, 이를 잊는다. 영혼들은 브라만드에 거주한다. 이것은 인간들이 거주하는 세상인 반면, 영혼들은 브라만드 (빛의 원소의 지역)에 거주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려고 이리로 온다. 저 위는 하늘의 원소다. 모든 이의 발은 땅 위에 놓여있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공기 속에 있다. 별들인 영혼들은 거기 (하늘 위 저 너머)에 거주한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로켓을 타고서 여행하고 심지어 우주공간에서 로켓 밖으로 나오기까지 한다. 그들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라는 글까지 쓴다. 거기엔 (중력의 당김이 아닌) 인력이 아주 커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 수 있다. 그러니 작은 영혼이 빛의 거대한 원소 안에 머물 수 없겠느냐? 그들의 거주 장소는 그곳이다. 태양, 달, 별들은 아주 크다. 그것들이 어떻게 저 위에 계속 있는지 보라! 그것들은 끈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드라마 전체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84생의 사이클을 한 바퀴 돈다. 이것은 나무이며 커다란 가지들과 잔가지들이 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은 너희가 볼 수 없다. 바바는 너희에게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다. 나중에 오는 자들은 확실히 더 적은 수의 생을 취할 테지만, 바바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 각자의 계산내역을 말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브라민 종교, 신인 종교, 전사 종교가 브라마를 통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수립을 수행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그것을 부양해야 한다.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는 셋이 서로 별도의 신인들이다. 이 말은 브라마에게 얼굴이 셋 있다는 뜻은 아니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자녀들아, 너희는 완전히 몰지각하게 되었다. 그가 지금 와서 너희를 지각 있게 만들고 있다. 시타인 너희들 모두 지금 라반의 감옥에 있다. 너희들은 원숭이였고, 라마가 너희의 군대를 데려가서 너희가 사원 안에 모셔질 정도로 가치 있게 만들었다. 왕국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 슈리마트를 더 많이 따를수록 너희는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다. 너희의 마마와 바바가 1등을 차지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그들은 물질세계에서 너희들 앞에 앉아 있다. 너희는 서틀 리전에 앉아 있는 그들도 역시 볼 수 있고, 낙원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비전이 허락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크리슈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성한 활동은 너희가 노력하도록 고취하기 위해 보여진다. 노력하지 않고는 너희가 황제와 황후가 될 수 없다. 지각에 굳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기에 남아서 단호하게, “바바, 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다. 일부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바를 떠난다. 그들은 지식에 경탄해서, 지식을 듣고 그것을 남들에게 들려준 다음에 도망간다. 초창기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 사이클 전에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도망갔다고 일컬어진다. 너희들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데, 마치 너희들 자신의 삶을 믿을 수 없는 것과도 같다. 그들은 바바에게 속한 다음에 죽는다. 그들은 심지어 신에게서 태어난 생일을 축하까지 하고 나서 죽는다, 즉 그들은 바바의 손을 놓는다. 바바가 거둬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스위트홈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와 집을 기억한다. 신봉의 길에서 너희는 반 사이클 동안 신을 기억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집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집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그리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여행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제 진정한 여행자가 되었다. 오랫동안 기억하며 머무는 자들은 죄가 잘려나간다. 너희들은 또 순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8시간 동안의 이 봉사를 지속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평화와 순수성의 파동을 퍼뜨린다. 기억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 밤의 여행자여, 지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다. 철시대의 끝은 브라마의 밤이 끝나고 있다는 의미다. 모든 이가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한다. 영적인 집을 기억해라. 영혼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한다. 몸에 대한 의식을 없애라! 영혼의식이 되어라! 이것이 기억의 순례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지각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으며 아버지와 집을 거둬 기억하겠다는 결심을 지속해라.
2. 영혼의식이 되려고 노력해라. 라반의 감옥, 즉 5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슈리마트를 따라라. 사원에 모여질 가치가 있게 되려고 노력해라.

축복:

통제하는 힘으로 너희 자신을 조절하고 마침표를 찍는, 변함없이 강력한 영혼이 되어라. 점인 아버지를 의식하고 점인 영혼을 인식함으로써 너희는 마침표를 찍는 강력한 영혼이 된다. 강력한 영혼에게는 그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 그런 영혼들은 남들을 조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통제함으로써 변화하는 힘을 사용한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다. 그들은 결코 “나만 항상 죽어야 되나?” “나만 언제나 참고 견뎌야 하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강력한 영혼은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자아주권을 차지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슬로건:

모든 생각에 결단력이라는 특질을 지닌 자들만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